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미동부노회는 제3회 정기노회를 18일 주예수사랑교회에서 개최했다. 앞줄 왼쪽부터 Caruthers 목사(부서기), 김환창 장로(회계), 김봉택 장로(부회계), 황용석 목사(회록서기), 뒷줄 양경옥 목사(부노회장), 황정옥 목사(노회장), 방명근 목사(부회록서기), 김상웅 목사(서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美동부노회 정기노회 성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미동부노회는 제3회 정기노회를 18일(화) 오전 11시 주예수사랑교회(담임 강유남 목사, 동사 황용석 목사)에서 개최했다.

노회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회기의 임원들 모두를 유임시키고, 그동안 꺾석으로 있던 임원들만 새로 선출했다.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황정옥 목사(유임) △부노회장 양경옥 목사(유임) △서기 김상웅 목사(유임) △부서기 Carrthers 목사(신임) △회록서기 황용석 목사(유임) △부회록서기 방명근 목사(신임) △회계 김환창 장로(유임) △부회계 김봉택 장로(유임)

노회는 서상원 목사(주예수사

랑교회), 정일천 목사(과테말라 링콩 주예수사랑교회), Judy Turin 목사 (Haiti), Caruthers 목사 (Townley Presbyterian Church), Saal M. Hali 목사 (Teaneck High School) 등 5명의 노회 가입 청원을 받아 들이고, 김준현 전도사(주예수사랑교회)와 배대진 전도사(뉴저지 벨 엘장로교회)를 목회자 후보생으로 받아들였다. 김준현 전도사는 뉴저지미주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에서, 배대진 전도사는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 석사(M. Div) 학위를 취득했다.

회무 처리에 앞서 드린 개회 예배는 서기 김상웅 목사가 인도했다. 회록서기 황용석 목사가 기

도를, 노회장 황정옥 목사가 설교와 축도를 담당했다. 황정옥 목사는 잠언 28장 9절, 야고보서 4장 2-3절, 요한계시록 8장 4절,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성찬식은 부노회장 양경옥 목사가 집례했다. 방명근 목사가 기도를, 황용석 목사가 분병을, 김환창 장로가 분잔을 담당했다. 양경옥 목사는 고린도전서 11장 23-26절을 본문으로 “나를 기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노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진행되었다. 사진 촬영을 할 때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했다.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